



姜 信 默  
 〈새생각회 회장〉

### 創意的 밑거름은 好奇心이다

好奇心이란 새로운 것, 처음 보는 것에 對하여 알아보려는 精神的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日本에 처음으로 鐵砲가 紹介된 것은 1943년이다. 그 다음해에 이것을 본따서 國產 총을 만드는데 成功했고, 13년 후

에는 日本 全域에 총이 80여만 자루가 있었고, 2만자루는 外國에 輸出까지 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外國의 총을 본것은 꽤 오래 된다. 그러나 鐵砲의 國產化는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보다, 日本이 近代化에 앞장설 수 있는 한 要因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日本은 그만큼 잠재주에 능하고 원숭이처럼 模倣하는 습씨가 비상하여, 그 旺盛한 好奇心과 模倣力은 東洋 3國에서 가장 뒤떨어졌던 日本을 오늘날과 같은 經濟大國으로 만든 原動力이 됐던 것이다.

굳이 美國의 리스만教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世界的民族중 日本만큼 好奇心이 강한 사람들은 없으며, 또 그것은 經兆浮薄과 相通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創意活動에 있어서 好奇心만큼 重要的 것도 없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現在의 유럽인은 分明히 好奇心에서 日本에게 뒤진다. 그러나 그들은 일찌기 旺盛한 好奇心으로 大航海時代를 이루지 않았던가!

17세기 末葉부터 18세기 初에 이르러 이태리인도 불란서인도 독일인도 旅行熱에 들며

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旅行에 나섰다.

그리하여 旅行記와 旅行案内書가 많이 出版되고, 그것이 또 刺戟이 되어 知的으로 固定된 世界에서, 움직이고 흐르는 世界으로 사람들이 生覺을 바꿨다.

무엇이나 神奇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衣服의 流行처럼 현 것은 버리고, 새 것이라면 어지럽도록 받아들였던 것이다.

일찌기 近代 初葉에 유럽에서 터진 好奇心이 近代化가 높은 水準에 이른 現在 시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뒤늦게 近代化하기 始作한 日本에서 結局 英國의 3배의 빠르기로 工業化하고, 英國以上으로 工業化한 現在까지도, 그때로 當初의 旺盛한 好奇心이 시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相對方이 마음에 안들거나 밋거나하면 相對方의 長點마저 찢뜯는다. 그러나 賢明한 사람은 相對方이 밋더라도 長點만은 認定하고 본받는다.

남의 長點을 본받아 내것으로 삼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서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日本人의 旺盛한 好奇心은 본받아야겠다. (계속)

## (案) 第62回 發明教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4月中 第62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1989年 4月 8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特許廳 研修室 (풍림빌딩 7층)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 提供)
- ◎ 문의처: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